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  
2019 사업보고서

Contents

PROLOGUE	03
CEO 인사말	05
2019 HIGHLIGHT	07
2019 재정보고	13
2019 사업	15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는  
타문화권의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화 지원 및 IT 인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2003** WTIT는 해마다 국제정보화봉사단을 제3세계에 파견하여 정보기술의 이용을 돕고 있으며, 그 곳에 컴퓨터센터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보기술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3

- 우즈베크센터 60대 컴퓨터 업그레이드 지원
- 캄보디아 컴퓨터 센터 설립
- 타직 컴퓨터 센터 설립

### 2015

- 몽골 밝은미래학교 외 11개국 14개 컴퓨터센터 지원
- 요르단 외 4개국 컴퓨터 기증 및 업그레이드 지원

### 2019

- 네팔 Hanna's Hostel 컴퓨터센터 설립
- 미얀마 만달레이 아웅뵤레 컴퓨터센터 설립
- 인도네시아 탄중뿌리옥 컴퓨터센터 설립

'03

...

'14

'15

'17,'18

'19

### 2014

-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3개국 컴퓨터센터 지원

### 2017, 2018

- 네팔, 미얀마, 타직, 파키스탄 4개국 컴퓨터센터 지원

##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사랑하는 후원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정보기술 민간협력기구(World Transfer of Information Technology, 약칭 WTIT)의 이사장 김정중입니다.

저희 단체는 2003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NGO단체로 설립되어 지난 기간 동안 국가 간의 정보 격차 해결을 위하여 낙후된 여러 나라와 지역에 컴퓨터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그동안 여러 기업과 단체, 기관으로부터 재정, 장비 및 인력 등을 후원받아 단체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그동안 해오던 컴퓨터센터 설립과 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새롭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 '100개 컴퓨터센터 찾기'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각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들과 협력하여 컴퓨터센터를 만들고 운영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오면서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은 네이버 해피빈과 인연입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이지만 네이버 해피빈을 통하여 '100개 컴퓨터센터 찾기' 프로젝트의 초석이 되는 몇 개의 모범 프로젝트들을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후원을 받고 잘 진행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의 성공으로 앞으로 더 많은 컴퓨터센터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원활하게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의 뜨거운 후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체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개 컴퓨터센터 찾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더욱 사랑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 04.

WTIT 이사장 김정중

국내외 사업장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곳에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가 함께 합니다.

13개국, 1,15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제공합니다.

총 지원 학생 수

1,150 명

활동 국가 수

13 개국

중동 3개국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국내 2사업장

본부, 이태원

아시아 9개국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



## 2019년 9월 판교에서 “제이어스와 함께하는 나눔콘서트”



2019년 9월 20일(금) 저녁 6시30분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제이어스와 함께 하는 나눔콘서트가 열렸습니다.

LoveNphoto.com



네팔 IT센터 Hanna's Hostel  
설립을 위한 Seed Money 모금

# 2014

IT 센터 설립을 위한 Seed Money 모금을 위하여  
2014년 부터 후원 음악회를 개최해왔습니다.

## 2014

컴퓨터 지원사업 및 봉사단 파견사업 지원

## 2016

캄보디아 평화국제학교외 7개국 8개 컴센터 지원

## 2019

네팔 IT센터 Hanna's Hostel 설립을  
위한Seed Money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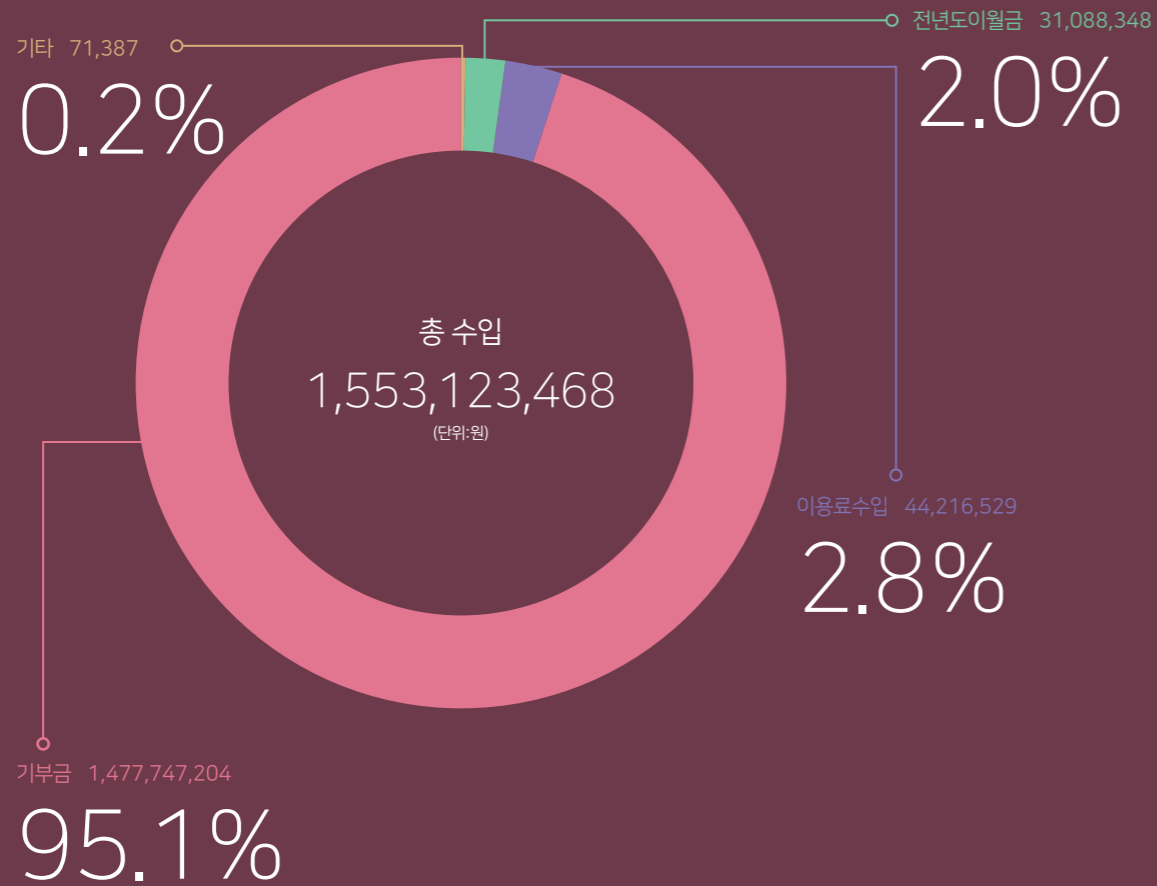
## 2015

몽골 밝은미래학교외 4개국 6개 컴센터 지원  
국제 IT 컨퍼런스 개최 지원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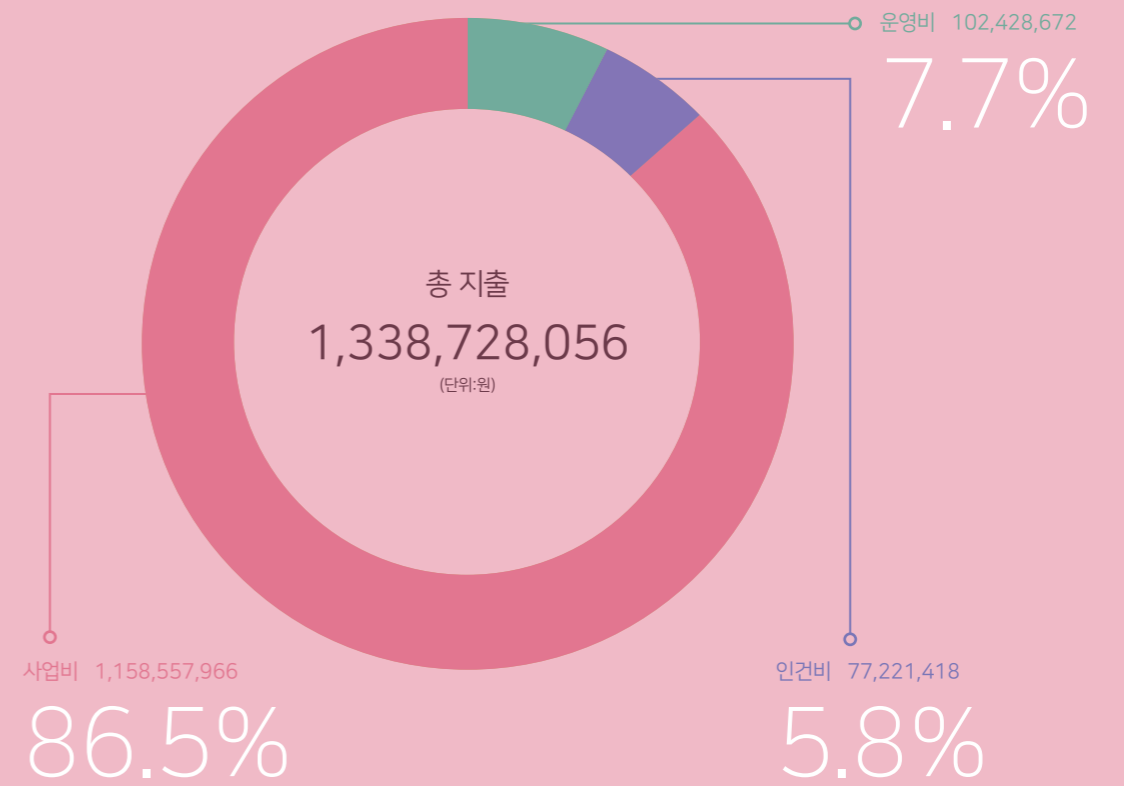
네팔, 미얀마, 타직, 파키스탄 4개국 컴퓨터 센터 지원

수입보고  
2019



(단위: 원)		
기부금 수입	1,477,747,204	95.1%
수익사업수입	-	-
이용료수입	44,216,529	2.8%
정부보조금	-	-
전년도 이월금	31,088,348	2.0%
기타	71,387	0.2%
<b>총계</b>	<b>1,553,123,468</b>	<b>100.0%</b>

지출보고  
2019



(단위: 원)		
사업비	1,158,557,966	86.5%
인건비	77,221,418	5.8%
운영비	102,428,672	7.7%
자산조성비(시설비)	-	-
기타	520,000	0.0%
<b>2019 지출 총계</b>	<b>1,338,728,056</b>	<b>100%</b>
차년도이월금	214,395,412	-
<b>2019 결산 총계</b>	<b>1,553,123,468</b>	<b>-</b>

## 미얀마 아웅뵤레



“숨겨진 보석 같은 재능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함 없이 내밀어 준 도움의 손길은 그늘져 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소망의 씨앗이 되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컴퓨터 정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나누어 주셔서, 지난해 2019년 11월부터 컴퓨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아웅뵤레 지역에 마련한 컴퓨터 센터는 지역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30명)과 청년들(10명)에게 컴퓨터 기본 교육부터 알고리즘 교육까지 제공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의 두뇌활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부터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알고리즘 교육은 아이들의 내재된 자기개발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보석 같은 재능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컴퓨터 센터”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미얀마까지 강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컴퓨터 센터를 3월 말까지 운영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지침으로 지금은 센터 운영을 잠시 멈춘 상태지만, 지난 5개월간의 운영 발자취를 기부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학생인 린셋나인과 초등학생인 모나디고는 친남매로 컴퓨터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습 센스가 돋보이는 우리 린셋나인은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모든 컴퓨터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친구로 학습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빠르게 익히고 배워 교우들과 나누는 착한 친구이지만, 그림 그리기 수업 시간을 통해 알게 된 린셋나인의 내면세계는 결코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내면을 볼 때면 마음 한 켠이 아려옵니다. 오빠와는 달리, 밝은 미소를 간직한 우리 모나디고는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합니다. 더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컴퓨터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청년들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 중 떠돌이 자매에게 제공한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센터를 세워가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 어린 손길이 지구촌의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손길이 지구촌의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명의 학생만 수혜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꿈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탄중뿌리옥



**“기쁨을 이기지 못할 아이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컴퓨터 센터 개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빈곤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할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아이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컴퓨터 센터 개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센터 오픈 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오픈을 목표로 2월 중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기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날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장비 구입 완료 후, 개소식을 준비하던 중,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모든

일정과 모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센터 오픈 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안정화되길”**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에 아이들의 희망찬 미소로 화답하고 싶었으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일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기임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안정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 그 날 기쁜 소식으로 다시 기부자님께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빈민지역이고, 병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의료 취약국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큼니다. 가난한 삶만으로도 힘겨운 그들의 삶에 코로나19가 더 큰 재앙으로 삶을 짓누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마음 졸이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 그 날 기쁜 소식으로 다시 기부자님께 찾아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네팔 Hanna's Hostel



네팔은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 히말이 있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창조주의 광대하심과 섬세함 앞에 자연히 경외감을 표하게 되는 곳입니다.

네팔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서 학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권도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난의 세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삶의 소망을 심기 위해 학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선한 의지에 함께 소망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에 설립된 컴퓨터 센터로 인해 소외되었던 정보통신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컴퓨터를 경험하며 익히며 성취해 나갈 때마다 느끼는 행복감을 같이 함께 보며 누릴 수 있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총 5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가슴깊이 감사함을 새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마주하고 키보드를 치면서 얼마나 신기해하는 줄 모릅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지식이 자라는 만큼 사회와 세계 속에 필요한 인재로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센터를 두 달 정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팬데믹의 영향력은 네팔 히말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네팔은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와 외출 금지령으로 모든 업무와 사회 활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속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봄날이 우리 앞으로 다가와 함께 웃으며 활기찬 눈망울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먼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저희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